

미술 아카이브는 작가의 작품세계와 기관과 제도의 역사, 그리고 미술계 곳곳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아카이브는 기억을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저장하는 일이지만, 저장된 기억을 불러와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전시와 역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연구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초부터 혈혈단신 한국 미술계를 기록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해 온 김달진은 살아있는 미술 아카이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김달진 관장을 만났다. 연구소 곳곳에 빼곡히 꽂힌 자료마다 그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1970년대 신문 원본 구석에 파란 글씨로 쓰인 서명이 평생에 걸쳐 지속된 기록의 행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 정도 분량의 수집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우표나 담뱃갑을 수집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주부생활》 잡지에 컬러 도판으로 실린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미술 자료를 스캔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다. 사조별로 도판과 설명을 정리한 책이 나중에는 10권이 되었다. 책이라기보다는 서양미술 전집이라고 불려야 할 분량과 디테일이었다.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경복궁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은 그가 서양미술사뿐 아니라 한국 근대 작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한국 근대 작가들의 자료를 찾아다니고 기록했다. 지금 김달진미술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시절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은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고희동의 자화상이 유가족의 이삿짐 꾸러미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창덕궁에서 작품이 나오기도 했죠.”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을 이어 왔던 이경성 선생이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부임하면서

1981년부터 15년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덕수궁 동관의 한 사무실을 비워 자료실·전문위원실 간판을 붙이고 밤낮없이 일했다. 전시과, 사무과 두 개의 분관에 전 직원이 30명 남짓이던 시절이었으니 자료실 사정도 열악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출근부를 찍고 종이가방을 멘 채로 인사동, 서간동, 동숭동을 돌며 전시장과 책방의 자료를 모았다.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기로 정보를 기록했다. 발품을 팔아 모은 정보로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행한 국전 도록 중 빠진 회화의 전지를 모두 채워 넣었다. 편집광적인 소명 의식 덕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초기 자료실은 서서히 구색을 갖추었다.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하고 2002년 1월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미술계의 최전방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온 시간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미술사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난 2014년 그는 그동안 모은 2만여 점의 자료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디지털자료실에 기증했다. 자료를 공유화하려는 그의 바람 덕분에 많은 이용자가 손쉽게 자료를 구하고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그가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하루 빨리 더 많은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맞이한 50주년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50주년은 의미가 커요. 역사를 반추하면서 우리의 맥락과 정체성을 찾으려면 근대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립근대미술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더 늦기 전예요. 또 국립미술관의 컬렉션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가가 20, 30년 후에도 유의미할지, 지금 이 시대에 이 작품이 왜 필요한지 정확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작품을 사들여야 합니다. 작가 관리의 기준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록해야 역사가 되고 보존해야 아카이브가 된다.” 재야에 묻혀 있던 근대 작가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내보여 온 그의 말이다. 개관 반세기를 맞이한 국립현대미술관도 한 단계 도약할 분기점에 서 있다.

염하연 기자

